

보도해명자료

(‘16.7.8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“성분 모르는 ‘묻지마 세척제’... 제2 옥시 사태 우려”
(‘16.7.8. 서울신문)

1. 기사내용

- ☐ 서울 중구의 A중학교 급식실이 사용하는 세척제는 모두 7종.
- ☐ 학교들이 성분도 모르는 세척제를 버젓이 쓸 수 있는 이유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들 세척제를 자율안전 관리 품목으로 정했기 때문이다.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☐ 식기, 야채·과일을 닦는 주방용 세정제는 「공중위생관리법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음
- ☐ 일반 가정에서 물체를 세정할 용도로 사용하는 세정제는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생활제품안전과 송양희 과장 (043-870-5450)
이경희 연구관/김미애 연구사 (043-870-5451~2)